

홍루가 쪽염색 염색가 **자연을 담은 색** **건강을 지키는 색을 만든다**

감, 밤껍질, 포도, 숯, 쪽, 오배자로 빛깔을 내는 천연염색. 홍루가(54세) 쪽염색 염색가는 자연의 재료를 모아 건강한 색을 만든다. 천연염색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색과 다르게 자연을 보는 듯한 자연스러움이 있고 항균성, 소취성, 항알레르기 등 건강한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한복아카데미에서 천연염색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홍루가 염색가를 만나 천연염색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천연염색 색깔이 나올 때까지 설렘으로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강의실로 들어가자 가을빛에 바싹 마른 감의 은은한 향내가 났다. 천연염색에 쓰일 감인 것이다.

홍루까 염색가에게 천연염색은 낯선 것이 아니었다. 그의 어머니는 전통매듭장인 조일순 선생. 어릴 때부터 전통적인 것을 보고 자랐고 미대를 나온 터라 천연염색은 익숙하리만큼 익숙했던 것. 어쩌면 운명 같은 것이었으리라.

천연염색의 가장 큰 매력은 자연이 주는 색에 감동을 받는 것이다. 그 중에서 그를 매료시킨 것은 쪽이다. 가장 좋아하는 색을 '쪽빛' 이라고 말하는 그는 "쪽빛 색은 자연에서만 나오는 색입니다." 라고 소개한다. 그는 쪽을 염색하기 위해 쪽을 재배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 천연색을 하기 위해 자연을 가꾸는 것이다.

"천연염색은 자연에서 나온 식물을 채취해 식물을 말리고, 끓이고, 달여서 염색을 하죠. 염색도 한 번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5~10회 반복하죠. 그 과정은 늘 설렘니다. 어떤 색이 나올까 궁금하고, 세상에서 단 하나 뿐인 색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니까요." 홍루까 염색가가 말하는 천연염색의 장점이다.

색깔마다 건강 키워드가 숨어있다

천연염색은 자연과의 상생이다. 자연에서 나온 수확물을 천연소재에 염색해 자연의 색을 얻어낸다. 과정의 시작이 자연인 것이다. 이렇게 자연에서 나온 색인데 어찌 사람 건강에 무익할 수 있으랴.

천연염색은 항균작용이 뛰어나고 아토피 등 피부질환에도 효과적임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됐다. 이뿐만 아니다. 염색 소재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도 각각 다르다. 양파로 염색한 소재는 냄새를 없애는 소취작용이 탁월해 예부터 작업복으로 활용했고 감은 방충, 방풍 및 방수효과가 뛰어나 어부들이 즐겨 활용했으며 지금도 바람막이 옷으로 이용한다고 한다. 황토로 염색한 옷을 입으면 피부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황토는 두드러기를 다스리는 데에도 효과적이라 황토로 염색한 옷은 내의류로 많이 활용한다. 홍화꽃은 열을 내는 역할을 하는데, 자궁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 여성들이 속옷으로 활용하면 좋다고 한다. 또한, 골다공증이나 고혈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홍루까 염색가는 쪽염색 염색가답게 쪽의 효능도 강조했다. "쪽은 피부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상처가 가라앉는데 도움을 주고, 아토피에도 효과적이죠. 쪽을 이용한 피부암 치료제도 나왔으니까요."

이처럼 천연염색에 대한 홍루까 염색가의 자량은 끝이 없다. "천연염색의 색깔이 곧 자연의 색깔이라 우리가 친근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색깔이 건강한 생활을 돕기까지 하니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홍루까 염색가의 얼굴이 밝게 물들었다. **MEDYCHECK**



천연염색은 자연과의 상생이다. 자연에서 나온 수확물을 천연소재에 염색해 자연의 색을 얻어낸다. 과정의 시작이 자연인 것이다. 이렇게 자연에서 나온 색인데 어찌 사람 건강에 무익할 수 있으랴.